



**일 일 벤 처 체 험**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업그레이드한다!

# we made entertainment



2001년 11월부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회원 2억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미르의 전설2>. 그리고 이를 이은 새로운 시리즈 <미르의 전설3>도 2003년 최고 동시접속자수 60만 명으로 중국에서 한국 온라인게임의 신화를 만들었다.

이에 이어 <창천 2> 출시를 앞둔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박관호).

마케팅팀 김범주 사원의 여자친구인 김지영씨의 MMORPG <위메이드>편을 테스트해보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초록과 연두의 중간쯤에 있을법한, 봄 빛깔이 여린 풀 무리처럼 맞아준다.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 공간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지영씨의 눈길이 벽돌과 따스한 벽지로 마감한 공간 한 칸에서 들리는 친근한 소리에 맞춰진다. 물소리. 거꾸로 오르는 분수도 아니고 작은 기둥을 따라 말 그대로 '졸~ 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줄기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왔어?”

6층 마케팅팀에서 서둘러 올라온 듯 상기된 김범주 사원의 얼굴. 이제 만난 지 5개월된 김지영씨가 오늘 위메이드 일일벤처체험의 주인공이다.

마케팅팀 김범주 사원은 지난 해 5월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다. 쌍문동 집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다가 구로로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은 이전보다 더 소요되지만 10시에서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씨를 만나는 일이 즐겁다. 위메이드는 250여 명이 근무하고 평균연령은 30대 안팎.

“회사에 이런 곳이 있어?”





커다란 창 밖으로 디지털 단지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직원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지영씨가 묻는다. “직원들이 음료와 사발면 같은 간단한 음식을 무료로 이용하고 지인들과 미팅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 은은한 조명과 빛깔,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간에 왔다는 설레임과 사람들의 두런 두런 대화를 소리로 들으며 신기한 듯, 흥미로운 얼굴이다.

### 상상력의 근원은 자유와 도전 |

“디지털단지 내 <마리오 타워>에 있다는 말만 듣고 찾아왔는데 일단 카페를 보니까 편안하고 아늑해보여서 좋아요.” 위메이드에 대한 지영씨의 첫인상. “어머, 근무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거야?” 탄성을 연발하는 이유는 4년차 간호사인 지영씨의 이력과 연관이 있다. 일하는 공간이 병원이다 보니 휴대전화 사용도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 “자유로워서 좋겠다...” 가득한 부러움을 표현한다. 임상적인 치료보다 인터뷰가 주를 이루는 정신과 일이 좋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지영씨 앞에서 연신 카메라 셔터가 눌러진다.

사진찍는 걸 좋아하는 범주씨는 사내 사진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요즘 영화와 보드게임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

위메이드엔 지점토로 피규어 등을 만드는 스킵피동호회, 프라모텔을 만드는 프라동, 영화, 산악, 축구, 요가, 헬스, 농구, 당구, 보드게임동호회 등이 있다.

“축구와 산악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축구는 IT 회사 대항 경기도 갖고 그래요, 어, 저기... 어이, 베킴!” 범주씨가 누군가를 반갑게 부른다.





축구를 잘 해 붙여진 '벼컴' 사원에게 잠시 회사 안내를 부탁하고 전화 업무를 처리하는 벼주씨. "보드 게임 동호회의 경우 월 1회 정기모임이 있는데 한 번 모이면 자정을 넘기는 건 예사예요. 모두들 매니아 기질이 있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벤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가 보다. 한 번 빠지면 좀처럼 벗어날 줄 모르는 그들의 강점. 한 사람을 꾸준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로에 온 후 시설이 좋아졌고 밥 먹을 곳도 많아서 좋아요. 특히 작업공간이 넓어졌어요. 직원 250명이 2,000평을 사용하거든요."

여의도에서 구로로 이사하면서 면적은 2배가 된 데 비해 비용은 60%가 절감되었다. 이 비용을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헬스장과 카페다. "전 카페와 헬스장이 제일 좋아요." 헬스장 문을 열자 지영씨의 눈이 동그레진다. "벼주야, 너 여기서 운동해라, 너~무 좋다." 뿌듯해하는 벼주씨의 얼굴.



###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면 여행을 하고 싶다는 두 사람. "커플 추천 여행지는?" 돌발 질문에 "가까운 파주도 좋고요, 헤이리 출판단지... 서울에도 좋은 곳이 많아요. 서울숲. 여기는 어린이대공원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의도공원도 좋고 선유도도....." 답변이 적적하다. 하긴 어디든 좋을 것인 사람들에게 우문 현답을 들은 셈이다.

"어제 사이트 들어갔더니 이게 뛰어나더라." 카페에서 로고와 게임캐릭터가 프린트 되어있는 종이컵을 가리키며 말했던 지영씨를 개발실로 안내한다. "네가 본 귀여운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져."

"아까와는 판 판이다." 모니터와 자판, 마우스로 이루어진 세상처럼 소리는 모두 그들의 것. 툭, 툭, 토도둑, 짹, 짹... 폭신한 카페트가 그나마 소리를 흡수한다. "바닥 공사 두 겹으로 한겨야. 선이 많아서..." 회사의 작은 것 하나까지 설명해 주려 애쓰는 모습이 김범주 사원의 애사심을 느끼게 한다. "다들 정말 열심히네... 그런데 서로 대화는 안 해?" "메신저." 당연한 듯 짧은 대답에 이어 "사운드실?" 지영씨의 질문이 꼬리를 문다.

"게임에 들어가는 음악을 만드는 곳이야, 영화 <행복한 장의사>에서 음악을 만든 분이 작업하는 곳이지. 지금 주인이 없으니 여긴 넘기고..." 하얗게 마감한 창 사이로 지영씨가 전자바이올린을 비롯한 악기들을 주의 깊게 본다.

## 정통 MMORPG의 자존심!



### <미르의 전설> 시리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중 하나로 2D게임의 자존심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르의 전설2>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미르의 전설3>는 중국, 다만, 영국에 진출해 서비스되고 있다.



### <창천 온라인>

역사서 '삼국지'를 근간으로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전투들을 충실히 재현, 생생한 액션과 고도의 전략을 모두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게임. 협객, 검객, 무사, 역사의 장수들이 구사하는 액션은 마치 콘솔게임을 즐기는 듯 짜릿한 타격감과 손맛을 구현한다.

2,500평의 공간에 카페, 웬만한 스포츠클럽 부럽지 않은 헬스장, 동호회 모임이나 팀 미팅을 갖을 수 있는 아지끼기한 미팅룸까지 ...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하면서 위메이드는 절감된 회사 운영 비용을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시 펼쳐지는 개발실. 칸막이 사이에 스파이더 맨이 천정을 오르려한다. “구체관절인형... 그래픽을 하려면 동작을 봐야 하니까. 실제로 만들어도 보고 저렇게 놓아두고 연구하지.”

“나무가 참 많아” 잘 자란 나무들을 눈으로 살펴보는 데 개발실 벽 쪽으로 나 있는 미팅룸 입구 이름표가 독특하다. ‘전설의 방, 조화의 방, 미르, 발리, 푸켓...’ 회사 곳곳에서 느껴지는 섬세함이 게임 그래픽의 완성도를 반증해주는 듯 하다.



### 이 게임 한 번 해볼래?

키보드와 패드 모두로 게임이 가능한 <창천>은 게임의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 패드 사용을 권한다는 범주씨의 설명. 게임 중에 상대와 부딪히면 진동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패드는 2차 테스트에서 뽑힌 테스터들을 위한 위메이드의 선물이다.



7층 개발실을 둘러본 후 드디어 6층 범주씨 자리를 보게되었다. 칸막이에는 회사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료들이 준 사진이 조롱조롱 붙어있다. 지영씨를 위해 창천 온라인 게임을 설명하는 담당자들. “제가 하는 일은 마케팅팀에서 해외 빌링에 관여해요. 그리고 국내 CRM(고객성향 분석)을 담당하죠.” 말은 간단하지만 범주씨 책상위에 두 개의 모니터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창천... 재밌겠다!”

오늘, 위메이드를 방문하게 되어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했다는 지영씨의 칭찬에 범주씨의 얼굴이 더 환해진다. “당연하지~. 지영아 올 회사 무.이.자. 결혼대출제도도 있다. 여기 뼈를 묻을까?”

범주씨의 익살에 환하게 웃는 지영씨 뒤로 <창천>이 오픈한 올 여름을 무성하게 덮을 위메이드의 초록빛이 선명하다.



### 김지영씨는.....

경력 4년차 간호사인 지영씨는 정신과에서 근무한다. 위메이드에 이렇게 직접 와 보기 전엔 ‘벤처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범주씨의 말을 듣고 ‘작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다정다감’을 남자친구의 장점 1순위로 꼽으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위메이드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맘에 들었다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정신과 간호사 일이 좋아 그 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고 있다는 지영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위메이드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아픈 곳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